

# 헨리 나우웬의 영성과 치유적 상담에 대한 고찰

변영인 교수

(Ph. D., 동서대학교)

## 국문초록

외로운 오늘날의 현대인은 핵인간화 되는 관계를 갖고 살아간다. 이로 인해 외롭고 상처를 안은 인간관계의 회복과 치유는 전인적 치유를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 즉, 영성의 회복이 중요하며 이것은 바로 치유적 상담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 전인적 인간이란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차원이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상호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sup>1)</sup> 근대 상담학과 치유가 발전한 이후 과학의 자리에 있는 상담학은 검증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영성의 영역을 다루기를 꺼려왔으나 이제 인간을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부분이 통합된 인격체로 이해하는 오늘날 상황에서 상담과 치유의 영역에서 영성을 다루는 것은 인간을 전인으로 이해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상담학의 입장에서 한 개인의 삶에 전인적인 의미를 갖는 총체적 부분인 영성이 무시된다면 결코 효과적인 상담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

기독교 상담자들이 내담자들에게 치유상담에 임할 때 헨리 나우웬이 실천한 영성과 치유는 온전히 하나님 중심적인 영성을 스스로 겸비하고 신학과 심리학에 균형 잡힌 인격으로 나아가면서 소외된 자들을 섬겼던 사실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은 헨리 나우웬의 영성과 치유를 살펴보면서 오늘날의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헨리 나우웬이 그의 저서 『상처입은 치유자』를 통해 피력한 바 상처를 입은 자가 그 영성을 회복한 후 오히려 고통 받는 자를 위해 치유적 상담

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우리의 상처는 오히려 타인의 상처를 회복시킬 자원이 될 수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헨리 나우웬의 생애를 연구함으로써 그의 영성과 치유의 관점과 그의 저술을 통해 본 영성의 이해를 알아보고 또한 일반적, 다양한 측면에서의 영성이해의 접근을 비교, 고찰해 보고 상처와 치유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헨리 나우웬의 관점을 비교하며 연구한다.

이를 통하여 또한 치유적 상담에로의 적용을 살펴보고 아울러 헨리 나우웬의 영성과 그의 관점으로 치유상담의 시사점을 발견하면서 치유상담자의 자세 및 치유상담의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중심단어** : 헨리나우웬, 영성, 상처, 치유, 상담

## I. 여는 글

###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오늘의 현대인들은 대다수가 외롭고 고독한 내적 상처와 아픔을 지닌 채 살아간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다른 사람과의 깊은 만남에서 오는 사랑과 관계회복 속에서 살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깊은 사랑을 주고받기 보다는 심지어 가족 간에도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왜곡된 사랑으로 온전한 인간관계의 모습을 상실해가고 있다.

역사 심리학자 로버트 제이 리프론 (Robert Jay Lifron)이 서술한 단절된 역사와, 단편화된 이데올로기와 불멸의 추구로 인해 고통 받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대라는 그의 표현을 나우웬은 ‘핵인간(Nuclear Humanity)의 시대’라는 표현으로 극명히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제프리하텐은 고통 받고 있는 시대의 상태가 오늘의 세대이면서 또한 내일의 세대로 내향적 세대, 아버지 상실 시대, 강박적 세대라고 불렀으며 또한 헨리 나우웬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상실의 세대를 통해 진지한 영적 고민을 하게 만든다.<sup>2)</sup>

오늘날 영성의 개념이 부각되는 것은 통전적 시각을 강조하는 학문적 흐름

과 함께, 인간을 전인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인간을 이해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라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이해는 상담심리학 영역에서도 전인적 치유를 위하여 기존에 신학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영성의 문제를 도입하도록 이끌고 있다.

오늘날 이 영성은 전통적인 이분법적 사고구조 속에서 육체적인 것과는 대조되는 것으로의 영성 개념보다는 기독교인의 삶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전인적 인간과 연관된 개념으로 점차 이해되고 있다.<sup>3)</sup>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중 하나는 인간의 전인적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상담학 영역에서 영성의 문제가 반드시 다루는 것이다. 즉 치유적 상담의 입장에서 상담자는 상담자 자신이 먼저 준비된 영성으로 내담자의 영적인 부분을 회복케하므로 치유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 치유상담을 통해 상담자의 자기 상처를 하나님과의 고독한 관계로 재조명하여 자신의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 아울러 헨리 나우웬의 영성을 통해 본 치유상담의 시사점을 짚어본다. 또한 상담자의 자질, 치유상담의 방법 등을 상세히 살펴본다.

## 2. 연구의 범위

본 논문은 헨리 나우웬의 영성을 치유상담학적 시사점 연계를 연구하기 위해 문헌분석의 방법론을 채택할 것이다.

본 논문은 헨리 나우웬의 영성을 통해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치유적 상담의 적용점을 찾는다. 헨리 나우웬의 생애, 영성, 상처와 치유에 대한 일반적, 기독교 이해를 고찰하고 그것들이 치유적 상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를 알아볼 것이다. 와이즈(Carroll Wise)는 *Pastoral Psychotherapy*를 통해서 기독교상담은 본질적으로 치유적 성격임을 강조함으로써 기독교상담자의 치유자의 역할을 중요시하였다.<sup>4)</sup> 본 논문은 이러한 목표를 수용하며 적용하되, 영성의 고양과 삶의 통합 및 내적 성장을 상담의 목표로 하는 영성 회복과 치유를 상담에 적용해야 함을 밝히고자 한다. 한편 치유적 영성의 관점을 상담의 적용으로 인간과 세계는 하나님이라는 신적 실재와 서로 불가분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며 본 연구자는 헨리 나우웬의 영성 이해

를 위해 영성의 제 이해를 폭넓게 알아보며 또한 치유적 상담에서 영성에 관한 적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 Ⅱ. 펴는 글

### 1. 헨리 나우웬의 생애에 대한 이해

#### 1) 헨리 나우웬의 생애의 연대별 변화<sup>5)</sup>

헨리 나우웬의 영성과 치유적 상담의 적용점을 이해하기 위해 헨리 나우웬의 생애를 살펴 보기로 한다.

헨리 나우웬은 1932년 1월 24일 네덜란드에서 태어났다. 그는 1957년에 신부로 서품을 받았으며, 가톨릭대학교, 메닝거 연구소, 니메겐 대학교 등에서 목회학, 신학 그리고 심리학 등을 공부하였다. 또한 예일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 신학부의 교수를 지냈으며, 프랑스의 라르쉬 공동체인 트로슬리와 캐나다의 데이브레이크에서 장애자들과 생활하였으며, 50여권이 넘는 작품을 남겼다.

지금까지의 헨리 나우웬의 생애를 기초로 하여 그의 생애를 연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32.1.24	네덜란드의 니에르크 출생
1957	네덜란드 유티레트 관구의 신부로 서품 받음
1957-1964	니메겐의 카톨릭 대학교에서 심리학 연구, 학위 취득
1964-1966	메닝거 연구소 <sup>6)</sup> 에서 연구
1966-1968	인디애나주 소재 노트르담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방문교수
1968-1970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소재 목회 연구소의 스템, 유티레트 소재 카톨릭 신학 연구소의 회원
1970-1971	네덜란드 니메겐대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 과정 · 학위 취득
1971-1981	예일대학교 신학부 교수
1976	미네소타주 켈리지빌 소재 에큐메니칼 연구소 회원
1978	로마에 있는 북아메리카대학에서 연구
1979	뉴욕주 소재 제네시 수도원에서 6개월간 수도 생활
1981-1982	남미에서 6개월간 체류 <sup>7)</sup>
1982.1-1985.7	하버드대학교 신학부 교수
1985.8-1968	프랑스의 라르쉬 트로슬리에서 9개월간 체류
1968.8-1996	캐나다의 라르쉬 데이브레이크의 신부
1996.9.21	네덜란드 힐버섬에서 사망

이로써 헨리 나우웬은 신학적 기초를 가지고 심리학적 연구와 인간 사랑의 실천을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일생의 노력이 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2. 헨리 나우웬의 제 관점

### 1) 헨리 나우웬의 인간관

헨리 나우웬이 보는 인간에 대한 관점은 미래를 지향하는 내일의 인간상, 사랑받는 자, 그리고 또한 상처받은 자로 보았다. 헨리 나우웬이 말하는 내일의 인간상의 특징은 오늘날의 부정적 인간상을 예견하면서 오늘의 세대는 내향적 세대, 아버지 상실 세대 그리고 강박적 세대라고 보았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정체성으로서의 인간은 또한 사랑받는 자의 의미는 선택받은 자, 축복 받은 자, 그러면서도 상처받은 자, 그리고 치유가 일어난 후에는 나누어 주는 자이다. 특히 상처받은 자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처는 외로움, 적개심과 두려움, 그리고 환상 등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sup>8)</sup>

### 2) 헨리 나우웬의 상담자관

헨리 나우웬의 상담자에 관한 관점은 크게 상처입은 상담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상담자, 그리고 내일의 상담자로 나눌 수 있다. 상처입은 상담자로서 모든 상담자는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원천으로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상담자로서 모든 상담자는 예수님의 치유하심(healing)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의 붙드심(sustaining)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심(guiding)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다. 미래 시대에 요청되는 내일의 상담자는 현실지향에서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 개인의 명예·알려짐 등의 유명세에서 편승함이 아닌 진지함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인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다.<sup>9)</sup>

### 3) 헨리 나우웬의 치유 상담관

헨리 나우웬에게 있어서 치유상담의 목적은 인간의 죄책감, 억눌림, 상처

로부터의 해방이다. 그 치유의 과정은 인간 내면의 세계가 영적 발돋움을 갖는 것이며, 치유의 장소는 기독교 공동체이다. 그리고 치유의 방법은 영적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공동체는 치유 목적으로서 인간의 죄책감, 억눌림, 상처로부터 해방이 달성되는 곳이며, 치유 과정으로서 영적 발돋움이 진행되는 곳이며, 치유 방법으로서 영적 지도가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환경<sup>10)</sup>이라고 보았다.

### 3. 헨리 나우웬의 저술 활동<sup>11)</sup>

헨리 나우웬의 영성을 연구하면서 그의 저술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고 보기에 헨리 나우웬의 활동시기에 따라 단계별로 작품을 구분해 본다면 아래와 같다.

시기	헨리 나우웬의 작품
1964-1966 (메닝거 연구소)	『새 시대의 사목』(Creative Ministry: Beyond Professionalism in Teaching, Preaching, Organizing and Celebrating) 『친교: 사목심리단상』(Intimacy: Pastoral Psychological Essays)임상목회교육시작
1968(암스테르담 목회 연구소) (카톨릭 신학 연구소)	『열린 손으로』(With Open Hands) 『토마스 머튼: 관조적 비평』(Thomas Merton: Contemplative) 『영혼의 양식: 일기체 형식』
1969 (노트르담대학 교수)	이 시기 그의 책 『새 시대의 사목』, 『친교』 두 권이 처음 출판되다
1972-1981 (예일대학 교수)	『상처입은 치유자』(The Wounded Healer: Ministry in Contemporary Society) 『노인의 영광은 백발』(Aging: The Fulfillment of Life) 『고독의 영성』(Out of Solitude: Three Meditations on the Christian Life) <sup>12)</sup> 『영적 발돋움』(Reaching Out: The Three Movements of the Spiritual Life) 『제네시일기』(Genesee Diary: Report From a Trappist Monastery)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로마의 광대』(Clowning in Rome: Reflections on Solitude, Celibacy, Prayer and Contemplation) 『소중한 추억, 나의 어머니』(In the Memoriam) 『마음의 길』(The Way of the Heart: Desert Spirituality and Contemporary ministry) <sup>13)</sup>

	『모든 것을 새롭게』(Making All Things New: An Invitation to the Spiritual Life) 『자비를 구하는 외침』
1974 (제네시 수도원)	『제네시 일기』(The Genesee Diary) 『위로의 편지』(A Letter of Consolation)
1983-1984 (남미 선교사여행 및 하버드대 교수)	『소명을 찾아서』(Gracias! A Latin America Journal) 『두려운 나라의 사랑』(Love in a Fearful Land: A Guatemalan Story)
1986-1996 (라르쉬 시절)	『친밀함』, 『거울 너머의 세계』, 『즐거운 마음으로』, 『탕자의 귀향』, 『영적 발돋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마음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소리』, 『아담』, 『춤추시는 하나님』, 『영성예의 길』 Henri Nouwen, Finding my way home, 윤종석 역, 『영성예의 길』 <sup>14)</sup> ,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 『안식의 여정』, 『모든 것을 새롭게』, 『영혼의 양식』, 『이 잔을 들겠느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희망의 씨앗』,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벽으로 가는 길』, 『스무살 마크에게 보내는 헨리 나우웬의 영성 편지』,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러러』

위와 같은 헨리 나우웬이 저술한 작품을 보면, 끊임없는 영성의 개발, 그 실천적 삶의 모습을 가다듬는데 인생을 바쳤다고 가히 말할 수 있다.

## 2. 영성의 이해

### 1) 영성의 어원적 의미

본 연구자는 헨리 나우웬의 영성을 이해하기 전 영성의 어원적, 다양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성이라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 인간 행위를 유발하는 그 어떤 태도나 정신으로서, 구체화된 종교적 또는 윤리적 가치를 총칭한다.<sup>15)</sup> 영어에서 사용되는 영성(spirituality)은 어떤 정신적인 가치관을 소유하고 그 가치관을 내면화시키며, 그 정신을 이상화하는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기독교 교전에서는 영성을 교의적이며, 종교적인 전체를 가지고 시작한다. 영성은 신령한 성품을 의미하는 말이다. 영성은 단순히 인간의 영혼(soul), 정신(mind)에 국한되지 않으며, 모든 인간 생명현상의 통합을 의미한다.<sup>16)</sup>

김경재는 영성을 지·정·의(知·情·意)를 통합 총괄하는 인간존재의 본 바탕이요, 인간성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며, 마음이 자신의 존재의 근거

인 하나님과의 교류, 합일, 동역을 체험하는 영혼의 핵이라고 주장하였다.<sup>17)</sup>

벤너(David G. Benner)는 다양한 영성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설명한다.<sup>18)</sup>

첫째, 자연적 영성이란 모든 종교적 영성의 기반이 되는 영성을 의미한다. 이것은 자기 초월과 포기에 대한 탐구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에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부분이다. 이러한 탐구는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을 지각하도록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기독교 영성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바탕으로서의 영성이라 할 수 있다.<sup>19)</sup>

둘째, 종교적 영성이란 인간의 삶에 활력을 넣어주고 초감각적 실재를 향한 자세, 믿음, 그리고 실행을 묘사해 주는 단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벤너는 종교적 영성에 대해 말하기를 ‘전능자와의 관계성’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종교적 영성의 의미는 바로 자기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삶의 영적인 중심(전능자)을 발견하고 그 중심에 의하여 인간의 모든 삶을 묶어 나가는 삶의 과정을 의미한다.

## 2) 기독교적 영성의 의미

기독교 영성은 역사적 예수님의 정신과 삶을 계승하려는 근본적인 요소를 가질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직접적으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추구하는 수직적이며 하나님 중심인 영성이다. 또한 일반 영성이 엄격한 자기 훈련과 수양을 통하여 자기의 성품을 바꾸려는 인간적인 노력을 강조한다면, 기독교 영성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분께서 우리 안에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sup>20)</sup> 예수님은 당신의 활동 초기부터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다. 누가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고 말했다(막 1:29-32). 성령의 능력 안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 예언된 것들이 실현되었음을 알리는 표적으로 확인시켰다(막 1:10, 눅 4:18-19). 이러한 원리를 배경으로 병 고치는 은사의 내용을 통해 치유적 영성에 대한 용어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영성(Spirituality)은 영(Spirit), 성스러운 영역, 혹은 중



교적 가치의 문제에 따라 붙는 일종의 민감성(Sensitivity)으로 정의될 수 있다.

칼 라너는 영성이란 “창조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초자연적인 생명으로 이 영성은 성숙하는 실제적인 초자연적인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브래들리 한센(Bradly Hansen)은 영성에 대한 명쾌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영성이란 “육체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으로써 영적인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 3) 헨리 나우웬의 영성의 의미

나우웬에게 그리스도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우웬은 우리의 내적인 삶속에 있는 수많은 요인들이 균형을 유지시켜 주고 있으며 이런 내면적인 긴장의 영역에 대한 민감성을 개발하는 것이 영적인 삶의 시작이라고 하였다.<sup>21)</sup> 나우웬의 영성은 낮은 곳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영성이다.

특히 그는 예수님의 “궁홀히 여기심”의 영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궁홀의 삶은 하향 운동성의 삶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5-28)고도 하셨다. 이것은 낮은 곳으로 임하는 길,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길이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소외된 자들, 갇힌 자들, 외로운 자들, 죽어가는 자들, 고문 받는 자들, 즉 궁홀을 구하는 모든 이들을 향한 길이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궁홀하신 것 같이 너희도 궁홀하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수 세기를 통해 모든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이 이 말을 되풀이해왔다. 문자적으로 “함께 고통하다”를 의미하는 궁홀은 우리가 다른 이들과 다를 때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동일할 때에 가장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된다는 진리를 가르친다. 궁홀이란 다른 사람들이 고통 받는 현장에 함께 있는 것이며 기꺼이 연약한 자들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다.<sup>22)</sup>

나우웬은 영성을 설명할 때 길이란 단어를 통해 표현하면서 기다림의 길, 평안의 길, 능력의 길, 자유의 길로 구분하였다. 기다림의 영성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기다림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여 가장 깊은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sup>23)</sup>

나우웬은 매일 밤 라르쉬 공동체에서 만난 장애인 아담을 침대에 누이고 돌보면서 아담의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철저한 섬김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었다. 또한 자신의 교통사고의 경험을 통해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이것이 나우웬의 영성의 길이다. 나우웬의 영성은 많은 장점을 소유하고 있고 현실과 하나님과의 만남속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는 균형감을 유지하여 조화로운 영성을 추구하기에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 많은 도움과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나우웬의 영성의 주된 흐름은 여러 영적 패러다임 중에서 기도를 중요시하는 묵상의 전통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나우웬이 모든 명예를 뒤로 하고 예일과 하버드의 두 명문대학 교수직을 떠나 라르쉬로 들어간 것은 그의 섬김과 실천의 영성을 말해주는 극명한 모습이다. 모든 기독교 영성은 완전한 모범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좋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고 나우웬의 영성도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다. 나우웬의 동기 부여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 하는 삶을 사시는 예수님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영성의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현대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적 신앙만을 강조하거나 또는 사회참여적 성향의 실천만을 강조하며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치우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우웬은 이런 약점들을 잘 보완하였다. 그는 이성적이고 개인적이면서도 실천하는 섬김의 풍성한 삶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 주었다. 어떤 것에 중심을 맞추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우웬의 영성은 많은 공감을 주고 있으며 영성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의 중심을 맞추려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나우웬은 섬김과 실천, 균형 잡힌 조화로운 영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갈망은 다양한 가치 속에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향해 나가는 좋은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sup>24)</sup>

### 3. 상처와 치유에 대한 이해

#### 1) 상처에 대한 이해

##### (1) 성경적 이해

우리는 인간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처와 치유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인간의 내적 상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성경은 단지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의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인간 마음에 관한 본질적이고도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25)</sup>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인간의 내적 상처는 첫째, 죄의식의 결과인 수치심, 버림받은 마음, 그리고 사랑의 굶주림에서 기인한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됨으로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 내면에 내재하실 수 없었다. 아울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분노의 마음 또한 그러하다. 분노는 근본적으로 사랑의 좌절에서 생긴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수치심, 버림받음, 사랑의 결핍, 분노와 같은 상한 감정이 세대를 이어 대물림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수가의 한 여인은 내면의 깊은 상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또 헤어지고 혼자 살아가지 못하고 또다시 다른 남자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관계중독’ (Relationship Addiction)의 악순환에 빠져 있었다. 그녀의 내면에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기대야만 살 수 있는 상호의존성(Co-Dependence)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그런 관계중독은 깊은 수치심을 심어주고 자기 개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성장해야만 했던 역기능적인 가정환경을 충분히 짐작케 한다. 그러나 다행히도 수십 년 억눌린 내면의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해 주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었다.<sup>26)</sup> 예수님께서서는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심으로 인간의 내면에는 깊은 상처가 내재되어있고, 또 그 상처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치유될 수 있음을 나타내신 것이다.

나우웬은 예수님처럼 해방을 선포한 사람은 자신의 상처뿐 아니라 남의 상처도 돌보아야 하며, 또한 자신의 상처를 치유능력의 주된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sup>27)</sup> 그러므로 성경적 상처의 의미는 죄로 인한 수치심과 병든

자존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2) 심리학적 이해

인간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우리는 상처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음에 분노와 외로움, 슬픔, 답답함과 같은 아픔이 꼭 차 있어도 그 상한 감정을 느끼기를 거부하는 인간의 내면의 심리가 있다. 또한 과거의 아픔을 인식하기조차 거부하는 심리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심리학적 연구에 의하면, 감정이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내면의 감성 세계가 외부적인 행복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sup>28)</sup> 인간의 자아를 불구로 만드는 상처 난 기억들은 다음에 그와 비슷한 경험을 반복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도록 병든 자아상을 심어준다. 하지만 자신의 자아상과 삶에 영향을 주는 감정을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을 정면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겉으로 강한 모습으로 보이면서도 자기내면의 감정을 깊이 숨겨 놓는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결국 자신을 파괴시키고 만다.<sup>29)</sup> 때로 사람들은 상처 난 고통스러운 감정을 내면 깊이에 숨겨 두고 그 감정의 숨긴 사실조차도 망각해 버린다.<sup>30)</sup>

시멘즈(Seamands)는 아픈 상처와 억눌린 기억들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나이트에 남게 된다고 한다. 모든 기억들은 우리가 다 떠올리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사고와 감정, 대인관계에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깊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한 태도나 타인에 대한 자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sup>31)</sup>

찰스 셀(Charles Sell)도 “우리의 기억이나 잠재의식 속에는 과거의 사건에 반응하여 이루어진 정서적 찌꺼기가 있다.”고 한다. 그것을 일으킨 사건은 끝났지만 여전히 그 사건에 대한 반작용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 예가 알코올 중독자 가정 출신의 성인 아이들이 분노, 두려움, 모멸감, 슬픔, 수치심, 무가치함, 우울증을 느끼며 살고 있는 것이다.<sup>32)</sup>

래리 크랩(Larry Crabb)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면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자신의 실재보다 더 영적인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불쾌한 내면의 감정들을 들추거나 건드리지 않으려 한다고 하는 것이다.<sup>33)</sup>

그러나 인간이 창조된 원래 모습은 불화가 없는 인간관계와 상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기에,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내재한 채 건강하게 살 수가 없다.<sup>34)</sup> 그런데 누구에게나 인격의 어두운 부분이 있다. 그 어두운 인격의 본능은 한 개인의 내면의 심층에 자리하고 있다가 때로는 외부로부터 노출되기도 하지만 내면에서 깊게 자리하고 있다. 우리가 무시하거나 억누른 감정들은 이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 역시 그 속에서 깊이 자리를 잡는다. 이 내면의 어두움으로 인해 인간은 복잡함을 지니게 된다. 또 내면의 그림자는 우리의 생각과 지각, 욕구와 행동들에 영향을 미친다.<sup>35)</sup>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정서 상태를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으로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고 억압해 온 사람이다.<sup>36)</sup> 이와 같은 기억과 감정 속에 깊이 묻혀 있는 상처를 인식하고 직면하여 밖으로 표출하기 전에는 온전함을 누릴 수 없고, 어두운 것을 빛이라 하며 악한 목적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평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sup>37)</sup>

### (3) 나우웬의 상처이해

나우웬은 상처를 표현하는 언어로 소외, 단절, 고독, 그리고 외로움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다. 특히 나우웬은 외로움을 ‘우리들이 경험을 통하여 느낄 수 있는 상처’라는 의미로 가장 잘 표현한 언어로 이해하였다.<sup>38)</sup>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경험하는 외로움과 상담자의 외로움을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라고 하였다.<sup>39)</sup>

외로움은 집착할수록 외로움의 상처가 커지며 그 상처는 우리의 존재 표면에서 깊이 새겨지면서 끊임없는 영적인 성찰로써 인격의 아름다움과 자기 이해의 원천이 된다. 이러한 상처이해의 원리는 상처가 상처 자체로만 머물지 않고 오히려 상처를 통한 치유에 이르는 의미를 줄 수 있다. 이것이 나우웬의 독특한 상처 이해하기이다.

기독교적 삶의 방식은 외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통하여 긍정적으로 변화될 값진 선물로 인식한다는 사실이다. 외로움에 대한 인식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고, 존재의 경계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

볼 수 있다. 외로움을 단지 우리의 내적 공허함(Inner emptiness) 자체로만 잘못 이해했을 때는 파괴적일수도 있지만 고통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사람에게서는 축복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sup>40)</sup>

## 2) 치유에 대한 이해

루드 스테플톤(Ruth C. Stappleton)은 내적 치유란, 우리의 상처와 고통의 뿌리를 다름으로 삶의 가장 깊은 영역을 성령께서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경험이라고 한다.<sup>41)</sup> 내적치유란 자아의 병리로 부터 자유하는 것이면서, 과거의 사건을 재명명하는 것이며 기억의 치유이고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치유과정이라고 했다. 존 Wimber(John Wimber)는 내적 치유란 과거에 손상된 감정이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의 기억 그 자체는 치유될 수 없으나 과거에 입은 마음의 상처와 감정의 억압으로부터 오는 후유증들 즉, 죄책감, 수치심, 좌절감 등으로부터 자유 할 수 있다고 했다.<sup>42)</sup> 시멘즈(Seamands)는 좀 더 발전시켜, 내적치유가 단순히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아픈 상처를 닦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생시키시는 은혜를 사용해서 우리를 고치시는 기적적인 일이라며 내적 치유의 영적인 면을 강조했다.<sup>43)</sup>

결국 내적치유는 내면과 기억 속에 있는 상처들과 부정적인 경험들로 인해 왜곡되고 어그러진 인격과 삶을 성령의 개입을 통해 영성을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 (1) 신학적 이해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와 하나님간에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영적, 육체적, 정서적인 모든 영역에서 온전히 안녕을 회복하는 것이다(요삼 1:2). 그러나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유지하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으로 따라오는 결과들은 죄, 수치, 거절, 고통, 수고, 어려운 관계 등이다.<sup>44)</sup> 다행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대가로 우리 영혼은 인간역사의 중심에 세워졌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타락함으로 도저히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것이다

(롬 8:1-2).

매일 경험하는 죄 즉, 어린 시절의 성적·정서적 학대로부터 오는 속박, 거절당하고 버림받음, 자기거부, 분노, 미움, 수치, 정욕,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지르게 되는 또 다른 죄들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두 처리해 주신다(사 53:5).<sup>45)</sup>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놓여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어 의롭게 되었으며 새 피조물이다(고후 5:17).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죄와 상처 가운데 살고 있다. 그리스도의 구원역사는 완성되었지만 우리의 성화는 아직도 진행 중이므로 우리 안에 갈등은 아직 남아 있는 것이다.<sup>46)</sup>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지금 이 시대에도 누릴 수 있다(사 32:1-4; 눅 17:20; 히 6:5)고 본다. 그리고 그 축복은 치유와 회복이다. 다시 말하면 치유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인간이 겪는 고통을 대신 겪으신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사랑이 현존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 (2) 심리학적 이해

인간은 치유되지 못한 심리적인 상처들로 인해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는 감정적인 평온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삶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sup>47)</sup> 이런 현상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이고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기독교적 즉, 영적 내적치유나 치유상담을 통해 심리적, 영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적치유의 심리학적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인간 심연이라고 할 수 있는 무의식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인간 무의식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빙산의 비유가 사용된다. 수면 윗부분은 의식 세계의 행동과 개념을 가리키고, 수면 아랫부분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이미지와 신념의 세계이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에 근거하여 삶을 살아가게 된다.<sup>48)</sup> 따라서 우리는 수면 아랫부분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그런 문제들은 대개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지만 우리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하며, 사람들이 그런 수면 아랫부분을 잘 처리하도록 치유 상담자는 돕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sup>49)</sup>

좋은 기억들은 큰 어려움 없이 의식에서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충격을 줄 만큼 큰 상처를 주는 사건들은 무의식의 깊은 곳으로 숨겨진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고통과 함께 그 경험을 잊으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무의식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치유되지 않은 무의식의 상처들은 알코올, 약물, 일 등과 같은 중독 현상이나 폭식과 같은 파괴적인 행동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sup>50)</sup>

인간의 뇌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이외에 경험된 사건만이 아니라 그 경험에 포함된 감정과 자기 해석이 함께 기억된다고 본다. 특히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던 과거의 경험들은 고통의 감정과 함께 깊은 무의식 속에 저장되는 것이다.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번 저장된 표상은 시간의 경과와 무와 상관없이 삶의 다른 여러 부위에 퍼져나가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sup>51)</sup> 이런 내재아<sup>52)</sup>는 우리의 성장 후에도 여전히 생활을 너무나 강하게 지배한다.

마이클 플린(Mike Flynn)과 도그 그레그(Doug Gregg)는 내적 치유에 유용한 심리학적 개념들 중에서 자기전능의식(omnipotency)을 소개하고 이것은 유아초기부터 시작되는 무의식적인 가정(假定)인데, 아기가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신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건강한 부모와 좋은 환경에서 자란다면 이 전능의식은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한다. 그러나 나쁜 경험들이 쌓여갈 때 자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이런 심리를 알 때 내적치유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sup>53)</sup>

그리고 투사(projection)가 있다. 이 투사는 깨닫기 전까지 무의식적으로 작용한다.<sup>54)</sup> 투사는 의식 상태에서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자아에 너무나 위협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전가시키려는 방어기제이다.<sup>55)</sup> 또한 타인의 행동에 자신의 의도를 투사시킨다. 이렇게 투사가 이루어지면 상대의 행동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도에 반응하는 것이 된다. 그 후 사람들은 대인 관계의 상호 작용에서 갈등하며 그 결과 상처를 주고받게 된다.<sup>56)</sup>

아울러 개별화(individualization)를 들 수 있다. 이것은 한 인격체로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이다. 이 개별화는 대개 청소년기에 시작되며 부모에게 반항으로 반응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표현인 것이다. 내적치유는 개별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권한과 자유를 적절히 부여하지 못한 상황에서 필요하게 된다.<sup>57)</sup>

이런 성장과정에서의 부정적인 경험들과 감정들은 한데 모아져서 내면에 잘못된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 그것을 거짓 자아(false-self)라고 한다. 사랑받은 경험이 적어서 자아개념이 부정적이거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거짓 개념들을 자신과 동일시 해버리는 것이다.<sup>58)</sup>

### (3) 나우웬의 치유 이해

нау웬이 말하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의 원천으로 삼는다는 것은 개인적인 고통을 피상적으로 공유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과 고통은 모든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깊은 인간의 상태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기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치유는 외적 상황이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는 관점을 바꾸어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을 말하며 이것이 헨리 나우웬의 치유에 대한 이해이다.

нау웬은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는 방법에서 상처 드러내기를 사용한다. 우선 기억들이 손에 닿을 수 있게 만듦으로써 기억들을 망각의 심연에서 끄집어내어, 기억들을 삶의 역사의 일부로 기억함으로써 치유 받게 한다. нау웬은 “치유란 우리 인간의 상처들이 하나님 자신의 고통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고 정의한다.<sup>59)</sup>

우리의 작은 고통들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고통 받으신 그 위대한 이야기와의 상관관계, 우리의 하찮은 삶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과의 관계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 바로 치유의 출발점이다.

영성 회복은 치유상담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고통을 대신 지셨던 고통과 우리 인간의 고통을 연결시키면서 치유한다는 것은 그 일차적인 의미가 인간의 고통을 제거하는데 있지 않고 우리의 고통이 예수님 안에서 치유되어야하며 우리의 체험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눅24:26)이라고 말씀하

신 예수님의 위대한 체험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인다는 것에 있다.

예수님의 치유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의 치유상담자를 피력하면서 나우웬은 세 가지를 강조하였다. 첫째, 치유상담자는 기억하는 일을 통해 치유하고 둘째, 치유상담자는 기억하는 일을 통해 개인의 상처를 받아들이고 그 상처들을 고통 받는 모든 인류의 상처와 연결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억이 치유상담자가 말하고 행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통해 일어난다. 이 말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성, 하나님과 살아 있는 연합의 길로서의 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나우웬은 말했다.<sup>60)</sup>

나우웬은 진정한 자아를 찾을 때 영성이 치유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만 자유와 기쁨으로 충만한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sup>61)</sup>고 나우웬은 말했다.

### 3) 치유적 상담의 적용

#### (1) 치유적 상담의 이해

이제 헨리 나우웬의 영성과 상처, 치유를 살펴보면서 상담에의 적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독교적 돌봄의 하나인 기독교 상담을 본장에서는 치유적 상담과 동일하게 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기독교 상담의 주제가 한 인간에 대한 영적인 측면을 언제나 주요 관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영적인 문제를 떠난 치유적상담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담은 일반적인 상담 접근법과는 다른 독특성이 있다. 인간의 제한된 상황 안에서 오는 불안을 다루는 상담자는 내담자를 전인적으로 도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훈련된 기술을 사용하여 관심의 대상인 사람이나 그들과 일련의 연속되는 관계들을 가지게 된다.<sup>62)</sup> 브리스터(Brister C.W.)는 일반 상담과 다른 기독교적, 영성을 기초로 한 치유적 상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일반상담은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의 치유나 인도를 위한 방법으로서 과학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행하는 대화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상담에 신학적인 관점을 근본으로 한

영성을 고취하기를 더하게 되면 영적 치유 상담으로서의 장이 열린다.”<sup>63)</sup>

치유적 상담자는 고난당하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접근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상담자는 고통당하는 자에게 신뢰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둘째로 치유적 상담자는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에 대한 공감은 내담자를 인격의 깊이에서부터 그의 주관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담자와 인격적으로 일체감을 이루는 것이며, 상담자 자신의 감정을 내담자의 감정과 함께 동화시키므로 내담자의 주관세계를 나누는 것이다.<sup>64)</sup>

결국 치유적 상담이란 기독교적 전통 위에서 고난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대화적 관계를 통한 공감적 이해와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 하여 이루어지며 그의 영적 성장에 영향을 끼치고 돕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 상담의 범위가 과학적 이론을 근거로 하여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과 자기실현을 추구하는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면, 치유적 상담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성에서 오는 문제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다루고자 하는 관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온전성을 회복코자 하는 지원적인 관계이며, 기독교적인 돌봄으로 이루어지는 상담이다.

## (2) 치유적 상담의 목표

치유적 상담과정을 통해 한 영혼 즉 내담자의 영성의 회복과 치유의 핵심을 기독교의 구속적인 목적으로 조명을 받는 상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sup>65)</sup>

또한 내담자의 전인적인 인격 회복과 영적 건강은 사람들이 개발하여야 할 목표가 되어야 한다. 상담자가 인간 상황 속에서 복음을 명백히 드러나게 도와주고 그래서 그 존재와 신념과 행위에서 하나님과 더 가깝게 되면 그들은 바른 길 위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이때에 전인성과 영혼의 건강 성취의 효과가 실현되는 것이다.

인간의 정신적, 심리적 문제 앞에 기독교적 관점에서 해결을 모색하고자 하는 상담의 목표는 기독교의 일반적인 사역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영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치유적 상담은 내담자로 하여금 하나님과 접촉하도록 도와준다.

치유적 상담은 내담자의 정체성의 발견에 도움을 준다. 사람들은 만일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과거와 장애와 감정들과 선물들을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인생의 표면적인 삶의 체험을 넘어서 저 깊은 생의 밑바닥을 들여다 보게 되면 자신의 걸어온 길들과 부딪쳐 온 위험들과 소유하게 된 특권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치유적 상담은 내담자의 통찰력과 자기 이해와 자기 용납을 증진시킨다. 통찰력은 정신과 심령의 깨달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지식 이상의 것이요, 감정적, 영적 지혜에 속하는 것이다. 새로운 자기 이해는 새로운 안목을 열어 주며 환희를 맛보게도 하지만 동시에 고통스럽고 위협적인 것이기도 하다. 개인의 잠재성의 실현도 상담의 중요한 절차이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변화를 촉진시키는 촉매로서, 내담자의 인생에 새로운 선택을 가능케 하는 결단을 도와주는 중개인으로서, 내담자를 하나님의 실재에 맞서게 하는 선지자로서 봉사한다.

치유적 상담은 내담자의 연약한 영혼에 무엇인가를 단순하게 덧붙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담자 자신과 인생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약속에 근거한 희망의 격려는 변화만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성장을 촉진시킨다.

치유적 상담의 회복은 기독교적 세계관 위에서 하나님과의 관련성을 맺고 있는 인간,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나가며 개인의 삶의 자리와 사회 안에서 자기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인간일 뿐 아니라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와의 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든든히 해 나가는 인간으로 회복시킴을 목표로 한다.

### (3) 치유 상담의 효과<sup>66)</sup>

내담자는 고통당하는 동안의 문제를 수평적인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문제들 곧 인생의 가치와 의미의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 궁극적인 인간의 운명의 문제들, 모든 인간의 죄책과 실존적인 불안에서 해방되는 문제 등을 제기하게 된다. 따라서 상담은 대화를 통해서 수평적인 지탱, 격려, 관계, 돌봄을 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교제, 화해에로 내담자를 이끌 때에만 내담자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전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요, 이러한 수직적인 차원의 실천에서 상담은 기독교 상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고난당하는 내담자를 도울 때에 그 한계점이 현실적인 문제나 인간의 육체와 정신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그의 영적인 문제에게까지 이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원리이며 근본적인 요소의 하나는 성령의 역할이다. “성령은 진실한 상담자이다. 성령께서 사람들안에 역사하기까지는 충만한 상태에 이를 수가 없다. 상담자의 도움도 사실은 성령의 도움이 있기까지는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마틴 이스라엘(M. Israel)은 계속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심리적 요소들까지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성령의 역할은 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게 만드는 기독교의 본질적 모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치유적 상담에는 근본적으로 성령의 사역을 기초로 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4. 헨리 나우웬의 영성으로 본 치유상담의 시사점

위와 같이 치유 상담의 이해와 그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언급된 치유 상담의 의의를 통하여 우리는 헨리 나우웬이 일생을 거치면서 실천하고 고뇌하며 또한 그의 저술로 표현한 그의 영성으로 비추어본 치유적 상담에 그의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 1) 헨리 나우웬의 영성으로 본 치유상담자의 자세

###### (1) 돌봄 (Compassion)

돌봄의 의미에서 동정심은 라틴어 “compassio”, 영어의 “compassion”의 의미로서 영어의 “sympathy”로서의 동정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다. 그 의미는 “함께 고통 받는다”라는 의미의 연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뜻은 같은 마음으로 느끼고 이해하며 함께 고통을 당할 수 있는 마음이나 상대방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을 말한다. 우리 모두가 치료 받을 필요가 있는 상처받은 인간이라는 서로간의 연대를 찬미할 때 “동정심”이 나타난다.

동정심의 훈련은 제자됨의 표현으로서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동정심은 모든 인간의 동정심의 원천이고 우리의 동정심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동정심에 의존한다는 의미이다. 동정심의 신학은 영적 지도자로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사실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동정심은 나우웬의 또 다른 독특한 영성의 주제 중 하나이다. 동정심은 영적 지도자의 핵심인데 상담의 자발적인 전이에 의해서 동정심의 실천은 이루어져야 하고 바로 그 실천이 제자됨이라고 말하고 있다. 치유상담은 물론 어떠한 상담에서도 돌봄의 의미는 상담자에게 있어서 우선 되어야 할 자세이다.

### (2) 긍휼(Compassion)

치유상담자에게 있어 긍휼은 매우 본질적 요소이다. 내담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상담자의 기본 마음자세라고 본다. 긍휼은 관용으로부터 기인된다.

그리하여 나에게 용서가 필요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긍휼은 하나님과 타인에 대한 의존을 필요로 한다. 긍휼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에 초점을 둔다. 긍휼은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기 위해 타인과 함께 살아가고 있을 때 공동체는 그들에게 지지와 격려와 방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sup>67)</sup> 또한 긍휼은 희망의 삶을 만들어내는 용기를 주는 방법일 수 있다.

나우웬의 긍휼에 대한 이미지는 통찰력을 주고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경쟁적이며 고립적이며 파편화된 사회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나우웬은 기독교 신앙의 긍휼을 통해 섬기기를 강조했다. 그러므로 치유상담자가 내담자를 대하는 자세 중에 긍휼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 (3) 환대(Hospitality)

환대, 즉 따뜻하게 맞이함(Hospitality)이라는 것은 서로를 치유하는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새로운 차원을 줄 수 있으며 심히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재창조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새로운 차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환대란 외인을 우리 집에 맞아들이는 문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말한다.<sup>68)</sup>

나우웬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의 원천으로 삼는다는 의미는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모든 인간이 서로 공유하는 깊은 인간의 상태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상처는 치유를 위해서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통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환대(Hospitality)”라는 말을 사용하였다.<sup>69)</sup>

성경적인 용어의 의미로서 ‘따뜻하게 맞이함(Hospitality)’이라는 어휘가 주는 인상은 부드럽고 포근한 친절과, 부담 없는 교제의 자리, 온화한 대화, 편안한 분위기이다.

나우웬이 제시하는 환대의 개념은 고독을 통한 빈 공간의 마련이다. 나우웬은 “환대가 손님으로 하여금 자기 영혼을 발견할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어 내도록 한다는 것은 참으로 역설이다.”<sup>70)</sup>라고 말한다. 또 환대는 찾아오는 자를 향한 고통에의 동참임을 “치유상담자의 임무는 의사처럼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그 고통을 깊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 의미를 제시한다.<sup>71)</sup> 환대는 개인적 관심으로 자신의 상처를 이해하게 해주고 그 상처를 치유의 원천으로 바꾸어준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며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한다. 환대는 천국에 이르는 참된 사랑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이미지는 환대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나우웬은 “환대”라는 개념은 그 의미가 아주 풍성한 성경적 용어로서 동료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통찰을 깊고 넓게 해 줄 수 있다고 말한다.

환대와 관련하여 나우웬은 “동정심”<sup>72)</sup>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즉 나우웬은 현대의 상담자들이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들의 문제를 단순화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그는 상담자들은 자신들의 신학적 지식으로 내담자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들의 삶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상담할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럴 때 상담자들은 영적 지도자에게 필요한 진정한 권위로서의 동정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 (4) 소명예의 충실

나우웬의 영적 여정의 목표와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나우웬이 그토록 영적 여정을 길게 한 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더 잘 따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의 소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더 철저히 따르는 것이었다. 나우웬에게 중요한 것은 강한 “소명” 의식이었다.<sup>73)</sup>

그토록 소명에 충실한 나우웬의 이러한 자세는 상담사역을 하는 상담자들에게 깊은 깨달음과 반성을 준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인간의 고통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절망과 무력함과 죄의식으로 마비되기 쉽다. 그러나 이럴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과 일을 살피면서 소명에 충실해야 한다고 나우웬은 극명히 표현하고 있다.

특히 상담자들은 나우웬의 말처럼 “자신의 소명에 충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다.”는 말을 늘 명심해야만 할 것이다.

#### (5) 균형 잡힌 영성의 추구

장준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균형”에서 극치를 이룬다고 주장하며<sup>74)</sup> 상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다.<sup>75)</sup> 나우웬은 누구보다 균형 잡힌 영성, 균형 잡힌 사역을 추구한 사람이었다. 그의 말 “상담자의 임무는 양자간의 긴장을 유지하면서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다.”<sup>76)</sup>에서 나우웬의 균형 잡힌 영성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균형은 그의 “겸손과 유연성”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 ① 기도와 실천사역에 있어서의 균형

나우웬은 기도와 사역을 구분하지 않았다. 즉 상담자로서의 우리들도 어떤 활동을 하는 준비나 상담자가 맡은 상담사역에서 효과를 내는데 불가결한 조건과 같은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삶 자체이어야 한다. 기도와 상담사역은 균형 잡힌 일이어야 하며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양자가 분리되고 나면, 상담자는 기술자가 되고, 사역직이란 결국 일상생활의 진실한 고통과 짐을 별로 나누지 못하며 간편하게 살아가는 직업적 생활양식에 불가하게 된다.<sup>77)</sup> 치유상담자는 기도가 “경건한 묵상”<sup>78)</sup>이며 그 자체로서 삶 자체가 “묵상”으로 담당되어 진다고 지적하는 것이다.<sup>79)</sup>

##### ② 심리학과 신학에 있어서의 균형

웨이인 홀스트는 나우웬의 주요한 공헌 세 가지를 들면서, 첫 번째가 바로 상담자들의 관심을 목회 심리학에서 영성 신학으로 관심을 돌리게 한 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sup>80)</sup> 나우웬의 주요 관심 분야는 처음에 “심리학”에서 나중에 “영성”으로 바뀌었다. 나우웬 자신은 이것을 “정신 역학”에서 “영성 역학”으로 바뀐 것으로 표현한다.<sup>81)</sup> 나우웬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고 한다. 그러면서 차츰 심리학의 한계를 깨달으면서 성경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데 까지 나아갔다고 고백한다.<sup>82)</sup> 나우웬은 심리학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성경은 심리학적 언어가 대치할 수 없는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한다.<sup>83)</sup> 그러면서 아울러 심리학이 성경 범주 내에서 인간의 본질과 인간 역동성의 정체를 이해하는데에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않는다. 이처럼 나우웬은 심리학과 신학 중 어느 한 쪽만 강조하지 않는다. 인간을 치유하는데 있어서 인간 이해의 수단으로 심리학의 효용을 인정하면서도 심리학과 신학의 균형을 유지하려 애쓰는 노력을 균형있게 해야함에 상담자는 역점을 두어야 한다.

#### (6) 예수 중심의 사상

치유상담은 결국에는 내담자가 예수 중심의 삶으로 그 영성을 회복하게 함에 있다.

헨리 나우웬의 사상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나우웬은 누구보다도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다. 그의 삶은 온통 영적 고향 예로의 귀향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영적 여정의 핵심은 무엇인가? 무엇을 향한 여정인가? 단지 자신의 영적인 만족과 카타르시스를 위한 여정인가? 나우웬 자신의 내면의 고통과 갈등을 회피하려고 하는 여정인가? 그렇지 않다. 그의 여정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었다.

헨리 나우웬의 모든 사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다. 그가 본받으려 한 것은 예수의 영성이었다. 그가 따르려고 한 것도 예수의 길이었다. 그가 모델로 삼은 것은 예수의 삶이었다. 그는 예수에게서 진정한 치유자, 영적 지도자, 교사, 상담가의 모습을 발견한다. 그가 제시하는 수많은 아이디어와 통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묵상에서 나온 것이다. 그의 모든 생각과 사상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애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상담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상담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상처입은 치유자”이다.

또한 나우웬은 궁극적인 상담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한다.<sup>84)</sup> 예수님을 만진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만지신 사람은 모두 치유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우웬은 진정한 상담자는 오직 예수임을 지적하고 있는

데,<sup>85)</sup> 이러한 것들은 상담자가 또한 내담자에게 사고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내담자의 삶도 그리스도 중심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7) 내담자 중심의 상담

나우웬은 아끼고 사랑한다는 의미의 “care”라는 말의 어원이 고트어의 “kara”에서 온 것이며 그 뜻은 “비탄한다”는 뜻을 지칭한다. 나우웬은 “care”라는 말의 어원이 이렇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care”라는 말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강자가 약자를, 권력자가 피권력자를, 부자가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를 연상하기 때문이다.<sup>86)</sup> 결국 나우웬은 다른 사람을 아끼고 염려하는 마음이야말로 완전한 치유를 가져 온다는 것이다.<sup>87)</sup> 이러한 자세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우웬은 상담자가 참으로 그 누구에게나 영적인 발돋움을 통하여 치유자가 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자발적인 태도를 가질 때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치유란 무엇보다도, 고통을 겪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 공간은 타인을 위한 “친밀한 빈자리”이다. 상담자의 이러한 배려와 귀기울임은 결코 “기교”가 아니니 그 이상이라는 것이다.<sup>88)</sup>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에 귀기울여 듣는 것은 서로 온전히 그리고 진정으로 마주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실로 아주 수준 높은 “환대”의 자세라는 것이다.<sup>89)</sup> 여기서 본 연구자는 “환대”라는 것을 내담자 중심으로의 관심과 돌봄으로 본다.

나우웬은 이러한 형태의 “환대”를 통해 치유와 변화가 일어난다고 본다. 그에 의하면 의사, 변호사, 목회자, 상담자, 사회복지사와 같은 이들은 모두 자신의 전문가적인 기술을 이용해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해내는 어떤 종류의 치유책이든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보살핌”으로부터 나오지 않을 때는 쉽게 과격해지고, 조작적이며, 심지어 파괴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나우웬에 의하면 보살핌은 함께 있어 주는 것이고, 함께 공감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또한 보살핌은 증후히 여기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이 인간적이며, 취약한 나의 형제, 자매라는 것이 진리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보살핌이 상담자의 첫 번

째 관심이 될 때 치유를 선물로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상담자는 치유할 수는 없으나 보살핌 수는 있으며, 치유는 부수적이라는 것이다.<sup>90)</sup>

결국 “환대”는 바로 “보살핌”이다. 이러한 환대와 보살핌에서 치유가 일어난다. 나우웬의 이러한 생각은 “내담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질 때, 즉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가능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 2) 헨리 나우웬의 영성으로 본 치유상담자의 방법

### (1) 고독

나우웬의 영성의 특징 속에서 발견되는 ‘고독’이라는 영성의 주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고독의 의미가 아니고 내적인 소양 혹은 심성의 태도를 말한다. 헨리 나우웬은 고독을 내적자유함의 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고독(Solitude)과 외로움(Loneliness)을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았다. 고독은 외로움이 전환되어 나아가 영적으로 발돋움해야 할 목표이다. 또한 외로움으로부터 고독으로 가는 움직임은 모든 영적인 삶의 시작을 말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연결하는 독특한 의미를 갖는 성숙의 덕목이다.

고독은 인간에게 영성에 이르는 길일 수 있으며 고독을 통해서 자신의 상처를 알게 되고 상처 난 자의 마음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된다. 고독은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시간과 공간으로 시작되어야 한다.<sup>91)</sup> 그러므로 내적 자유란 고독 속에서만 성장하게 된다.

나우웬은 『영적발돋움』이란 그의 저술에서 그는 실제로 홀로 있음 없이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일정한 고독을 수용한다는 것은 가장 필요하면서도 가장 힘든 수련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sup>92)</sup> 홀로 있음은 우리가 현재 자신들의 거짓되고 강박적인 자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자아로 전환되게 하는 변화의 산실이라고 보았다. 고독은 또한 중대한 투쟁과 중대한 만남의 자리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세상의 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자리이다. 또한 어두움의 세상에서 빛을 찾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고자 하는 자리이다. 고독은 공감적인 상담자이다. 그래서 고독은 사람을 공감적인 사람으로 만든다. 공감은 고독의 결실이며 모든 영성의 토대가 된다. 사람은

고독을 통하여 깊은 내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고독을 누리는 삶은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으로의 고독 속에서만 내적인 자유가 자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헨리 나우웬의 영성을 통해 치유상담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본다.

## (2) 관상기도 (Contemplative Prayer)

예수님을 생각하는 관상 기도를 통해 마음의 상처인 강박관념과 환상을 치유하는데 관상과 치유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나우웬은 관상생활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였다. 이런 점에서 관상기도를 드리는 장소는 조용한 분위기인 곳이 좋다.

관상적 삶의 근원은 하나님이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관상적 삶의 훈련의 목표로 보았다. 오직 주님께 대한 순수한 마음만 가질수록 하나님의 신비스런 사랑의 물결, 생명의 감각적인 신비가 우리의 영과 몸 가운데로 최대한 확대되어 자신의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경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헨리 나우웬은 자신의 고백의 기도를 위해서 각자의 영적인 훈련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곧 관상적인 기도에도 초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관상적인 기도(Contemplative Prayer)란 “Con”-함께, “Templation”-성소, ‘성소에 함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즉 하나님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관상적인 기도는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식 속에 온전히 들어오게 해서 우리의 내면의 방에 현존하는 기도이다.

관상기도의 실천은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게 하는 훈련이다.<sup>93)</sup>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며 그것을 마음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 관상이라고 하며 관상이란 성스러운 자가 자기 인식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sup>94)</sup>

안식의 영성(Spirituality of Sabbath)이란 나우웬이 깨달은 귀향의 영성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란 것이다. 그 관계성의 핵심에 예수님과 나와의 개인적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는 영성의 출발점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초청에 적극적인 반응을 통하여 발전되는 인간적 신뢰 관계인 ‘믿음’을 정의

한다.<sup>95)</sup>

나우웬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진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부인하고 스스로 집을 찾으려 멀리 떠난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의 반역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환영하시려고 기다리신다.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깨달음이 온다.

나우웬은 우리가 어떤 형태의 묵상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용한 곳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우리가 내면세계에 이러한 고요의 감각을 발전시키면 시킬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다.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우리는 언제 어느 장소에서나 영성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묵상기도는 영성을 수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 (3) 마음의 상처 직면

마음의 상처(상한 마음)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상처를 상처로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하면 애써 그것을 부정하든지, 그것을 위장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진정한 내적 치유를 위해서는 자신의 상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다.<sup>96)</sup> 즉,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이 회복의 첫 번째 단계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는 한 방법인 기만을 배격해야 한다.<sup>97)</sup>

그러므로 상한 마음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문제를 똑바로 직시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정직한 마음으로 기억하기조차 싫은 어린 시절의 경험과 대면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취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그치고 자신의 책임을 시인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손상된 감정(마음)은 치료받기 힘들다.<sup>98)</sup>

내적치유의 과정에 이 단계가 꼭 필요한 것은, 치유는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우리가 반응할 때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의지를 거슬러 치유하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즉, 치유가 일어나려면 변화에 열린 마음, 하나님을 기꺼이 신뢰하려는 의지, 과거의 사건과 기억에 솔직히 대면할 준비 등이 필요하다.

우리는 과거에 직면해야만 하고 과거에 부인했던 사건으로 찾아가 정직히

자신을 열고 두려움과 분노의 감정과 싸우며 대적 마귀의 공격들을 정복해야만 한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고 물으셨을 때, 그는 변명으로 반응했지만, 낫고자 하는 절박함이 있음을 보신 주님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다. 그러자 그는 반응하였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진 문제의 진상, 즉 고백하지 않은 죄나 감정적인 상처 혹은 깊은 수치심이나 신체적 학대와 같은 것들에 정직하게 직면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 일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상담에서 내담자와 아울러 상담자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과 상담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이 동시에 필요하다.

#### (4) 마음의 상처 치유하기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피하고 싶어한다. 피하는 것은 일종의 억압인데, 억압된 감정은 무의식으로 스며들어가서 어떤 형태로든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마음의 상처는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친근하게 살펴보고 상처를 통해 성장해야 한다. 성장할 때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

조용히 침묵 속에서 심호흡을 해보면서 내 마음의 상처를 지켜본다.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고통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살펴본다. 복잡한 인간관계와 고된 세상살이에서 가끔은 지치고 힘들 때가 있을 것이다. 속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음 아파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안고 살아 왔는지 상상해 본다.

조용한 침묵 가운데서 심호흡을 해보자. 아주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 그때의 사람들과 사물들, 그 상황으로 회상해 본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픈 마음이 가슴속으로 파고 들어오지는 않은가! 만일 이런 명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삶과 죽음,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그 안에서 즐겁고 고통스런 감정들을 초월적인 마음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자신을 깨닫고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마음의 상처를 멀리 하거나 덮어두기보다는 가깝게 하여 오히려 상처를 통해 내면의 깊은 곳까지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의 성장을 통하여 상처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나우웬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를 오히려 영

성성장의 기회로 삼아 영성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히려 치유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이라 보겠다.

#### (5) 예수님의 상담 모델을 통한 치유적 영성

##### ● 예수님의 상담을 통한 상처 드러내기

문제를 인식하고 난 뒤에는 이것에 대한 드러냄이 그 다음 단계이다. 우리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은 두려운 경험이 될 수 있다. 우리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방어벽을 구축하는데 인생의 대부분을 소모했다. 고립되어 살아가는 것은 더 이상의 상처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방법이었다. 이러한 자신의 드러냄은 고립과 외로움을 벗어나는 회복의 통로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빛 가운데서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빛 가운데의 삶은 자신의 죄와 연약함과 상한 심령의 문제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것이다.<sup>99)</sup>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 놀라운 자유가 있다. 이 믿음은 십자가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다. 십자가의 역사를 믿는다는 것은 내적인 상처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죄가 온 인류에게 가져온 모든 해악들 죄책감 뿐 만 아니라, 슬픔, 고통, 질병, 절망, 두려움, 소외 등의 모든 것을 다 처리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고통이 극에 다다랐을 때 자기 아버지께서 자기를 등 뒤로 외면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애환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치유되는 것이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온전히 나음을 입은 것이다.<sup>100)</sup>

자신의 아픈 상처를 인지하고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객관적인 상처에 대한 인지와 인간의 내적인 무의식의 세계를 알아야 한다. 인간에게 있어서 과거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죄와 아픈 마음을 더 이상 의식의 세계에 머물지 못하도록 잊어버리게 하는 망각과 무의식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무의식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수면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몽땅 하나로 묶어서 성령께 해결해 달라고 내려놓은

이들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혼돈과 무력함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이미지와 신념들을 소극적으로 내어 버리는 책임을 회피하는 처사이다. 단지 우리가 부패한 마음을 지닌 존재로서 자신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지 못할 뿐이다. 또한 우리는 내가 진실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바로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인간은 누구나 부정적인 자기 자신을 직면하기를 두려워 한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세계는 스스로 통제하려 한다. 그러므로 누군가 다른 사람이 보이주기까지는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기가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기 노출을 돕기 위하여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한다고 래리 크랩은 말한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히 4:12-13), 둘째는 하나님의 성령(시 139:23-24)이 시며 셋째는 하나님의 사람들(히 13:13)이라고 한다.<sup>101)</sup> 회복의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심지어는 버림받았을 때 느꼈던 공포와 같은 깊은 경험들까지도 나눌 필요가 있다. 이러한 드러냄은 성경의 조명 아래 있어야 하며 성령의 인도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또한 안전하고 용납해 주는 사람들 속에서 감정, 관심, 혼란과 갈등을 나눌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유익을 얻게 되지만 가장 큰 유익과 치료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 노출을 하는 그 자신이다. 자신의 문제를 말하기 전에는 자기 스스로 이야기기가 어떻게 풀려 나아갈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자신이 극복하기를 원하는 어떤 관심사, 문제를 안전한 사람이나 자신을 지지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 부담 없는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하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한다. 자신의 깊은 속에 있는 곧 우리의 참 자아로부터 우러나는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자신 속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

이와 같이 치유의 회복 즉 영성의 회복 단계에서 핵심적인 문제나 감정이 나타날 때 내적인 상처가 깊은 사람들은 현실에서는 내면세계와는 아주 다른 ‘가짜 자아’(Pseudo ego)를 사용해서 가장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치료 과정에서 상담자는 문제가 나타날 때 내담자의 참자아와 거짓자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나우웬은 요한복음이 자신의 기도생활과 가장 친밀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나우웬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부에게 속한 모든 영광이 성자에게도 역시 속해 있음을 항상 강조 하신다.<sup>102)</sup> 성부가 하시는 모든 일을 성자도 하신다(요 10:32).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요 10:30). 사역에 있어서도 구별이 없다.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요 5:19). 이것은 성부와 성자가 온전한 하나이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일성이 예수님 메시지의 중심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요 14:11).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그분이 성부께 보냄을 받은 자임을 믿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성부의 사랑이 충만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sup>103)</sup>

#### ① 니고데모를 만나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새로운 시각에서 믿음을 인식하고 새로운 인식으로 하나님과 그 자신을 바라보도록 니고데모를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순수한 지성에서 출발해서 그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새로운 관점으로 그를 이끄신 것이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놀라운 용기를 갖도록 그를 인도하셨다. 부캐넌은 이렇게 말했다. “예수는 니고데모의 삶에 전환점이 되어 주셨으며, 그 전환점은 그를 새로운 삶으로 몰입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sup>104)</sup>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마음의 눈을 뜨고 깨달으며, 깨어있다는 등의 의미로 모두 영성치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통해 거듭남을 깨닫게 되듯이 나우웬은 자신이 낮은자로 임해 라르쉬 공동체에서 돌보던 장애우 아담의 단순하며 솔직한 영성을 통해 예수님의 영성을 깨닫게 된다.

#### ②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헨리 나우웬은 또한 영성을 회복하며 치유를 위한 상담의 모델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비유에서 찾았다.

요한복음 4:1-16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가 다른 어느 복음서에서보다도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화의 전개과정을 관찰해 보도

록 한다.

첫째, 인격적 접촉의 원리를 사용하셨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대방에게 호의(好意)를 베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호의를 베풀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둘째, 점진적 주제 발전의 원리를 사용하셨다. 여인은 당연히 주님의 요청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이때 예수님께서 물이 있는 곳에서 '생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심으로 여인의 마음속에서 더 고결한 것에 대한 욕망, 곧 영적 호기심이 일어나도록 하시면서 여인의 이런 마음을 통찰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여인의 마음속에 잠재하고 있었던 영적 생명의 씨앗이 발아된 것이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요청에서 영적 진리의 제시로 전이되는 주제의 발전을 예수님의 신적 지혜에 의해 자연스럽게 주도되었음을 볼 수 있다.

셋째, 헨리 나우웬은 예수님께서 직면의 원리를 사용하셨다(요 4:16-18)고 본다. 여인이 여전히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 문제를 자연스럽게 들춰내심으로써 각성을 촉구하셨다. 구원은 개인의 죄의 자각과 이를 애통히 여기는 상한 심령과 더불어 전인격적인 결단이 요구되는 지·정·의의 총체적 요소를 포함하므로(시 51) 상담에서의 마음을 직면하는 것은 그 점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 Ⅲ. 닫는 글

위에서 본 연구자는 헨리 나우웬의 생애를 통해 그의 영성에 대한 이해와 영성의 전반적·성경적 이해를 살펴보았다. 헨리 나우웬의 치유적 영성은 그의 생애를 통하여 상처로 인한 고통과 치유를 직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얻은 깨달음과 그 결과로 얻어낸 실천 영성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나우웬의 생애를 살펴보면, 치유적 영성의 시작은 바로 자신의 삶의 과정에서 비롯된 고통을 해결하려는 탐구과정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우웬의 영성은 인간의 무의식에 잠겨 있는, 드러나지 않는 자신의 상처의 원인을 깨닫고 고독, 관상기도를 통해 환대, 돌봄, 안식의 영성을 거치는 치유의 과정을 직접 겪으면서 정립되어진 검증된 영성이었다. 헨리 나우웬의

영성은 치유의 시발점이 되는 무의식에 잠긴 상처의 원인을 규명해 주고 공동체 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치유의 길로 인도해주는 검증된 일상적이고도 실천적 영성이다.

헨리 나우웬의 영성은 자신의 상처를 타인과 나눌 때 치유함을 얻는다는 ‘나눔’의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기독교 공동체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곧 영성의 회복을 위한 치유적 상담이라고 본다. 상처의 가장 큰 병폐는 자기 자신에게만 고통을 국한 시키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고통을 주게 되므로 치유 상담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기를 두려워한다. 상처를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상담자나 타인으로부터는 상처가 얼마나 아픈지 이해받으려고 하고,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는 맹목적인 사랑을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고 더 큰 고통을 계속 만들어 낸다고 본다.

그러나 나우웬은 이 상처를 드러내고 타인과 나눌 때 치유가 일어난다고 했다.

헨리 나우웬의 영성은 타인에게 의존하는 타인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는 ‘자기 치유’의 영성이었다.

상처는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일차적으로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지 않으면, 치유는 일어날 수 없다. 사람들은 그 상처에 대한 치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시킨다. 그러나 상처를 전가 받은 대상은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워 주어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 낼 뿐이다.

нау웬은 오히려 이 상처를 원재료로 삼아 치료로 승화시킨다. 외로움을 자신의 내면세계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고독으로,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허무감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상으로, 내담자의 소외감과 배신감을 상담자가 따뜻하게 맞이함의 환대로, 내담자의 고통을 상담자가 자신의 고통스런 경험과 함께 고통 받는다는 공감의 동정으로, 상담자가 내담자와 서로의 관계를 마음을 끌어당기는 연민과 돌봄의 공화로, 예수님의 죽음을 부활로 대면되는 안식의 영성으로 승화시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깊게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죄에서 비롯된

상처는 심리학만으로도 온전히 치유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심리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인간의 상처를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접근하는 방법론적 치유를 찾는 것이다.

헨리 나우웬은 영성신학을 전공한 사제이고, 또한 심리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였다. 그의 영성 신학은 신학과 심리학을 접목하고자 노력한 결실로서 얻은 실천적 영성으로서 교회에서 신자들의 상처로 인해 야기되는 실제적 문제들을 치유하는데 도움을 준다.

한국교회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고난을 통해 성장하다가 물질의 풍요를 통해 오히려 성도들의 정신적·심리적 문제가 팽배되기 시작했으나 돌아보지 못하고 간과했다. 어느 시대에서든 오늘날에는 물질문명의 팽배는 정신문명의 결핍을 초래하게 되고 한국 기독교회와 성도들도 예외일 수는 없어 이제는 간과되었던 성도들의 개인적인 상처를 치유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그동안 교회 성장 프로그램, 전도 등으로 성도들이 훈련받아 왔지만 이제는 조용히 성도 개개인, 한 인간으로써 하나님과의 만남 즉 영성의 회복, 치유적 관계를 도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치유적 상담이 필요하며 아울러 이러한 영성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회의 상담자들 또한 나우웬의 영성의 원리인 고독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묵상의 기도, 상처 직면, 용서, 영성의 회복을 훈련하고 실천하도록 신학과 심리학에 균형 있는 인격을 갖춘 상담자도 절실히 요구됨을 인식해야 한다.

【 참고 문헌 】

- 강준민. 『뿌리 깊은 영성』. 서울: 두란노, 1998.
- 김경재. 『영성신학 서설』.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 김선화, 주서택. 『내 마음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서울: 순출판사, 1998.
- 박윤수. 『목회심리치료와 치유상담의 실제』. 서울: 도서출판 라빠, 1996.
- 오성춘. 『기독교 상담 사례분석』.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87.
- \_\_\_\_\_. 『영성과 목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90.
- 정태기. 『숨겨진 상처의 치유』. 서울: 규장, 2002.
- 김수남. “헨리 나우웬의 치유적 영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영신학대학원, 2006.
- 김홍근. “내적 치유에 대한 목회 신학적 이해.” 『教授論叢』 제13호. 군포: 한세대학교 출판부, 1998.
- 이용학. “헨리 나우웬의 사상이 목회 상담에 주는 의미.”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00.
- 장명수. “상담이론과 기독교영성에 근거한 전인적 인간 형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원, 1993.
- 전인문. “Inner Healing Through Bible Study and Prayer.” 박사학위논문: Oral Roberts University, 2000.
- Aumann, J. 『영성신학』, 이홍근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91.
- Benner, David G. 『정신치료와 영적탐구』, 이만홍 · 강현숙 역. 서울: 하나의학사, 2000.
- Brister, C. W. 『현대인의 희망과 절망』, 오성춘 역. 서울: 흥성사, 1989.
- Buchanan, Duncan. 『예수의 상담과 실제』, 천정웅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1987.
- Crabb, Larry. 『영적 가면을 벗어라』, 윤난영 역. 서울: 나침반, 1997.
- Crabb, Lawrence J. 『인간 이해와 상담』,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 2001.
- Dobsonm, Theodore E. 『내면을 치유하는 기도』,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 2002.
- Flynn, Mike and Gregg, Doug. 『내적 치유와 영적 성숙』, 오현정 역. 서울: 한국기독교 생회출판부, 2000.
- Gerkin, Charles V. 『살아있는 인간문서』, 안석모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8.

- Marshall, Tom. 『내면으로부터의 치유』, 이상신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04.
- Nouwen, Henri. 『영혼의 양식: 364일 지혜와 믿음을 향하여』, 박동순 역. 서울: 두란노, 1997.
- \_\_\_\_\_. 『로마의 어릿광대』, 김광식 역. 서울: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04.
- \_\_\_\_\_. 『새 시대의 사목』, 성엄 외 역.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79.
- \_\_\_\_\_. 『영성예의 길』, 김명희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997.
- \_\_\_\_\_. 『영성예의 길』, 윤종석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2000.
- \_\_\_\_\_. 『소명을 찾아서』, 이숙희 역. 『소명을 찾아서』. 서울: 성요셉출판사, 1988.
- \_\_\_\_\_. 『친밀함』,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 2001.
- \_\_\_\_\_. 『모든 것을 새롭게』,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 2000.
- \_\_\_\_\_. 『고독의 영성』, 홍은혜, 신현복 역. 서울: 아침, 2001.
- \_\_\_\_\_. 『영적 발달움』, 이상미 역. 서울: 두란노, 2000.
- \_\_\_\_\_. 『마음의 길: 사막의 영성과 현대의 사목직』, 이봉우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89.
- \_\_\_\_\_. 『상처입은 치유자』, 이봉우 역. 서울: 분도출판사, 2002.
- \_\_\_\_\_. 『상처입은 치유자』, 최원준 역. 서울: 두란노, 1997.
- \_\_\_\_\_. 『고독』, 최진영 역.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83.
- Seamands, David. 『상한 감정의 치유』, 송헌복 역. 서울: 두란노, 2000.
- Sell, Charles. 『아직도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 정동섭, 최민희 역. 서울: 두란노, 1993.
- Statt, David A. 『심리학 용어사전』, 정태연 역. 서울: 끌리오, 2001.
- Wimber, John and Springer, 『능력치유』, 이재범 역. 서울: 나단, 1995.
- Au, Wilkie and Cannon, Noreen. *Urgings of The Heart*. New York: Paulist Press, 1995.
- Holst, Wayne. "Henri Nouwen's Contribution to Spirituality." *Pneuma*, 1999.
- Kendrick, Stephen. "In Touch with the Blessing: An Interview with Henri Nouwen." *Christian Century*, :110, 1993.
- Shlemon, Barbara L. *Healing the Hidden Self*. Indiana: Ave Maria press, 1991.
- Stapleton, Ruth C. *The Gift of Inner Healing*.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76.
- Tippens, Darryl. "Loneliness and Community: An Interview with Henri Nouwen."

1993.

Wise, Carroll A. *Mental Health and the Bible*. New York: Harper and Row, 1956.

\_\_\_\_\_. *Pastoral Psychotherapy: The and Practice*. London: Jason Aronson Inc, 1983.

---

### [ 후주 ]

- 1) Carroll A. Wise, *Mental Health and the Bible* (New York: Harper and Row, 1956), 29-30.
- 2) 인간이 자신이 인간이란 것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창조 의 욕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핵인간화라고 말하며 핵인간이란, 인간이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이유와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 못하고 정신병리적 증상을 갖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에게 있어 가치 있는 단 한 가지는 '여기' 그리고 '지금' 뿐이라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방법이자 사실이다. 자신과 환경사이, 환경과 현실사이, 해야 할 것과 거부해야 할 것 사이에 명확한 구분 없이 현재의 포로가 되어 과거나 미래와 적절한 연관성을 갖지 못하는 증상이다. 내향적 세대: 개인적인 것에 절대 우위를 부여하는 세대이며, 자아 속으로 움츠러드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세대이다. 불확실성과 혼란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 줄 것이 전혀 없다고 확신하는 그들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는 것이다. 오직 인간의 개인적인 자아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무언가의 의미, 자유, 그리고 연합의 신비에 대한 열쇠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믿는다.
- 3) David G. Benner, *Psychotherapy & spiritual quest*, 이만홍, 강현숙 역, 『정신치료와 영적탐구』 (서울: 하나의학사, 2000), 139-140.
- 4) Carroll A. Wise, *Pastoral Psychotherapy: The and Practice* (London: Jason Aronson Inc., 1983), 25-26.
- 5) 이용학, "헨리 나우웬의 사상이 목회 상담에 주는 의미"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00), 27.
- 6) 메닝거 연구소는 1925년에 C.F. 메닝거와 그의 두 아들 윌과 칼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국립기관이다. 메닝거 연구소는 현대 목회 신학과 임상 목회 교육이 태어난 곳이다

- 다. 이 연구소는 정신적 질환에 관한 치료, 예방, 교육,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7) Henri Nouwen, 이숙희 역. 『소명을 찾아서』 (성요셉 출판사: 1998), 130.
  - 8) Henri Nouwen, *The wounded healer*, 최원준 역. 『상처입은 치유자』 (두란노, 1999), 44.
  - 9) Henri Nouwen, *Bread for the journey: a daybook of wisdom and faith*, 박동순 역. 『영혼의 양식: 365일 지혜와 믿음을 향하여』 (서울: 두란노, 1997), 209.
  - 10) Nouwen, *Bread for the journey: a daybook of wisdom and faith*, 37.
  - 11) 김수남, “헨리 나우웬의 치유적 영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영신학대학원, 2006), 198-199.
  - 12) Henri Nouwen, *Out of Solitude: Three Meditations on the Christian Life* (Notre Dame: Ave Maria, 1974), 홍은혜, 신현복 역 『고독의 영성』 (서울: 아침, 2001).
  - 13) Henri Nouwen, *The Way of the Heart : Desert Spirituality and Contemporary Ministry* (New York: Ballantine Books, 1981), 이봉우 역, 『마음의 길: 사막의 영성과 현대의 사목적』 (서울: 분도출판사, 1989).
  - 14) Henri Nouwen, *Finding my way home*, 윤종석 역, 『영성예의 길』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2000).
  - 15) J. Aumann, *Spiritual Theology*, 이홍근 역, 『영성신학』 (서울: 분도출판사, 1991), 18.
  - 16) 박운수, 『목회심리치료와 치유상담의 실제』 (서울: 도서출판 라빠, 1996), 159.
  - 17) 김경재, 『영성신학 서설』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218.
  - 18) Banner, *Psychotherapy & spiritual quest*, 157.
  - 19) Banner, *Psychotherapy & spiritual quest*, 156-157.
  - 20) 오성춘, 『영성과 목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90), 48-49.
  - 21) 오성춘, 『영성과 목회』, 41.
  - 22) 오성춘, 『영성과 목회』, 136-141.
  - 23) Henri Nouwen, *Finding my way home*, 김명희 역, 『영성예의 길』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997), 28.
  - 24) 김수남, “헨리 나우웬의 치유적 영성에 관한 연구”, 69
  - 25) 전인문, “*Inner Healing Through Bible Study and Prayer*”, (박사학위논문, Oral Roberts University, 2000), 16.
  - 26) 이관직, 『성경인물과 심리분석』 (서울: 한국목회상담연구소, 1999)



- 27) H. Nouwen, *The wounded healer*, 111.
- 28) Myra Chave-Jones, 차성구 역, 『자신의 감정에 귀를 기울여라』 (서울: 진흥, 1998), 22.
- 29) Myra Chave-Jones, 24-25.
- 30) Myra Chave-Jones, 30.
- 31) David A. Seamands, *Healing for damaged emotions*, 송헌복 역, 『상한 감정의 치유』 (서울: 두란노, 2000), 20.
- 32) Charles Sell, 『아직도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 정동섭, 최민희 역 (서울: 두란노, 1993), 36-37.
- 33) Larry Crabb, *Inside out*, 윤난영 역, 『영적 가면을 벗어라』 (서울: 나침반, 1997), 30.
- 34) Crabb, *Inside out*, 31.
- 35) Wilkie Au and Noreen Cannon, *Urgings of The Heart* (New York: Paulist Press, 1995), 25-26.
- 36) 정태기, 『숨겨진 상처의 치유』 (서울: 규장, 2002), 135.
- 37) Crabb, *Inside out*, 294.
- 38) Nouwen, *The wounded healer*, 111.
- 39) Nouwen, *The wounded healer*, 112.
- 40) Nouwen, *The wounded healer*, 113.
- 41) Ruth C. Stapleton, *The Gift of Inner Healing*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76), 9.
- 42) John Wimber and Springer, *Power to heal*, 이재범 역, 『능력치유』 (서울: 나단, 1995), 114.
- 43) Seamands, *Healing for damaged emotions*, 210.
- 44) Mike Flynn and Doug Gregg, *Inner Healing*, 오현정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2000), 52-53.
- 45) Mike Flynn and Doug Gregg, 57-58.
- 46) Mike Flynn and Doug Gregg, 58.
- 47) Barbara L. Shlemon, *Healing the Hidden Self* (Indiana, Ave Maria press, 1991), 9.
- 48) Lawrence J. Crabb, *Understanding people*, 윤종석 역, 『인간 이해와 상담』 (서울: 두란노, 2001), 216.
- 49) Crabb, *Understanding people*, 218.
- 50) Shlemon, *Healing the Hidden Self*, 10.

- 51) 주서택, 김선화, 『내 마음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서울: 순출판사, 1998), 29-30.
- 52) 본 연구자는 이렇게 저장된 부정적 어린 시절을 내재아라고 칭한다.
- 53) Mike Flynn and Doug Gregg, 170.
- 54) Mike Flynn and Doug Gregg, 171.
- 55) David A. Statt, *The concise dictionary of psychology*, 정태연 역, 『심리학 용어사전』 (서울: 이끄리오, 2001), 189.
- 56) Mike Flynn and Doug Gregg, 171-172.
- 57) Mike Flynn and Doug Gregg, 173-174.
- 58) Theodore E. Dobson, *How to pray for spiritual growth*, 윤종석 역, 『내면을 치유하는 기도』 (서울: 두란노, 2002), 32.
- 59) 김수남, “헨리 나우웬의 치유적 영성에 관한 연구”, 106.
- 60) 김수남, “헨리 나우웬의 치유적 영성에 관한 연구”, 107.
- 61) 김수남, “헨리 나우웬의 치유적 영성에 관한 연구”, 107.
- 62) 장명수, “상담이론과 기독교영성에 근거한 전인적 인간 형성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대학원, 1993), 46-55.
- 63) C. W. Brister, *The Promise of counseling*, 오성춘 역, 『현대인의 희망과 절망』 (서울: 홍성사, 1989), 20.
- 64) 오성춘. 『기독교 상담 사례분석』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87), 24-26.
- 65) Brister, *The Promise of counseling*, 146-151.
- 66) Brister, *The Promise of counseling*, 70.
- 67) Nouwen, Macneill, and Morrison, “The Parish As a Community of Copassion: A Style of Pastoral Leadership”, *St. Lukes Journal of Theology* 21, 50.
- 68) Henri Nouwen, *Reaching out*, 이상미 역, 『영적발돋움』 (서울: 두란노, 2000), 69.
- 69) Nouwen, *The wounded healer*, 118-119.
- 70) Henri Nouwen, *The wounded healer*, 이봉우 역, 『상처 입은 치유자』 (경북, 칠곡: 분도, 1982), 104.
- 71) 김수남, “헨리 나우웬의 치유적 영성에 관한 연구”, 120.
- 72) Nouwen, Macneill, and Morrison, 203.
- 73) Nouwen, Macneill, and Morrison, 212.

- 74) 강준민, 『뿌리 깊은 영성』, (두란노: 1998), 23.
- 75) 강준민, 『뿌리 깊은 영성』, 25.
- 76) Henri Nouwen, 『새 시대의 사목』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79), 94.
- 77) Nouwen, 『새 시대의 사목』, 14.
- 78) Nouwen, 『새 시대의 사목』, 77.
- 79) Nouwen, 『새 시대의 사목』, 79.
- 80) Wayne Holst. "Henri Nouwen's Contribution to Spirituality", *Pneuma* 6 (1999), 2.
- 81) Darryl Tippens. *Loneliness and Community: An Interview with Henri Nouwen* (1993), 16.
- 82) Stephen Kendrick. "In Touch with the Blessing: An Interview with Henri Nouwen.", *Christian Century* 110(1993), 319.
- 83) Daryl Dippens. "Loneliness and Community: An Interview with Henri Nouwen", 17.
- 84) Nouwen, *The Way of the heart: Desert Spirituality and Contemporary Ministry*, 42.
- 85) Nouwen, 『새 시대의 사목』, 80.
- 86) Nouwen, 『새 시대의 사목』, 33.
- 87) Nouwen, 『새 시대의 사목』, 43.
- 88) Nouwen, 『영적 발달움』, 110.
- 89) Nouwen, *Reaching out*, 111.
- 90) Nouwen, *Bread for the journey: a daybook of wisdom and faith*, 51.
- 91) Henri Nouwen, 『고독』, 최진영 역 (서울: 성바오로, 1983), 16-21.
- 92) Henri Nouwen, *Making all things new*. 윤종석 역, 『모든 것을 새롭게』 (서울: 두란노, 2000), 48.
- 93) Henri Nouwen, *Clowning in Rome*. 김광식 역, 『로마의 어릿광대』 (서울: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04), 161.
- 94) H. Nouwen, *Clowning in Rome*, 162.
- 95) Henri Nouwen, *Intimacy*, 윤종석 역, 『친밀함』 (서울: 두란노, 2001), 37.
- 96) 김홍근, "내적치유에 대한 목회신학적 이해", 192-193
- 97) Sell, 『아직도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 108.
- 98) Seamands, *Healing for damaged emotions*, 30-31.
- 99) 요일 1:4-10

- 100) Tom Marshall, *Healing from the inside out : understanding God's touch for spirit soul and body*, 『내면으로부터의 치유』, 이상신 역 (서울: 예수전도단, 1996), 112-113
- 101) Marshall, *Healing from the inside out : understanding God's touch for spirit soul and body*, 220.
- 102) 요 1:14
- 103) 요 5:24, 16:27, 17:8
- 104) Duncan Buchanan, *The counselling of Jesus*, 천정웅 역, 『예수의 상담과 실제』 (서울: 아가페출판사, 1987), 182-183.

[Abstract]

## A Study on the Henri J. M. Nouwen's Spirituality and therapeutic Counseling

Youngin Byun

(Ph.D., Dongseo University)

Today's people have relationship as a nuclear humanity each other. There are many kinds of wounds and broken hearts in their mind. These persons' solitude and wound should be healed and recovered in relationship with God.

We acknowledge that people should have a therapeutic counseling for spiritual recovery.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a therapeutic counseling through the Henri J. M. Nouwen's life, practice, spirituality and his books.

Henri J. M. Nouwen is famous for the writer of over 50 spiritual books and that of "wounded healer". According to his opinion, prayer and practice of spirituality is worthy and desirable for a therapeutic counseling.

He thinks that prayer, especially contemplation prayer, is the source which can give direction and power in life: a therapeutic counseling should be with prayer to correspond with God's intention. Because Nouwen's spirituality provides us with a balance between theory and practice, it can become a practical guidance to clients in progress of healing their wound.

In this article we can find how to apply Nouwen's spirituality to the occasion of a therapeutic counseling. This article shows Nouwen's life, his books as well as his academical viewpoint and spirituality. Additionally, this article deals with how to apply a therapeutic counseling with his viewpoint. Furthermore, a therapeutic counselor's attitude and a therapeutic method of counseling are written.

Key words : Henri J. M. Nouwen, spirituality, wound, healing, counseling